

무섭게 치솟는 '농사 물가'

기름·비료값 이어 농자재값도 급등... 농민들 '막막'

“기름값 상승에 비료 값까지 훌쩍 뛰더니 이전 농자재 가격까지 올리면 도대체 어떻게 수지를 맞추라는 말입니까.”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각종 농자재 값이 크게 오르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기름값, 비료값에 이어 각종 농자재 가격까지 줄줄이 올랐지만 농산물값은 되레 하락하고 있어 농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표정이다.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3천300㎡에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백옥호(56)씨는 지난해의 경우 2월에 마을 주민들과 농사에 쓸 비료를 공동구매 했었지만 올해는 아직 구입하지 않고 있다. 비료 구입시기를 최대한 늦춰 은행 이자를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백씨는 “원자재 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 허리띠를 어디서 졸라매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른 직종으로 바꾸고 싶어도 나이가 있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요소 비료 한 포대(20kg)당 가격은 9천750원에서 1만2천400원으로, 복합비료는 9천850원에서 1만2천950원으로 오르는 등 주요 비료 값이 평균 24% 급등했다. 최근 2년세 요소비료는 무려 39.3%, 복합비료는 43.8%나 올랐다. 면세 경우, 휘발유값도 각각 38.6%·49% 인상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고추 모종이나 하우스 농가에서 쓰이는 비닐(1kg)은 15.5%(330원) 올랐으며, 농업용 파이프(1m) 5.4%(48원), 농업용 배박스(15kg)는 7.7%(100원) 상승했다. 이앙기 등

농기계 가격도 10% 이상 급등했다.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6천㎡의 시설하우스에 수박농사를 짓고 있는 김우영(58)씨는 “지난해 매출이 2천200만원 가량이었는데 올엔 벌써 비료, 비닐, 농약값만으로 800만원 이상이 들어갔다”며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는데 한·미 FTA로 개방 압력은 거세져 오고, 농자재 가격까지 해마다 급등하니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나주에서 배를 재배하고 있는 김원석(54·금천면)씨도 “오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라며 “농사를 짓지 말라는 소리 같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한 두 가지 품목이 오르면 대안을 마련해보겠지만 유가 상승이 원인인 이상 포괄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100달러를 돌파한 국제유가가 올해 계속 상승을 유지하면 비닐하우스·온실에서 고추·오이·토마토·호박 등을 재배하는 시설채소 농가는 불어나는 광열비 부담으로 소득이 작년보다 최대 5분의 1 가량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다.

농촌경제연구원 25일 발표한 ‘유가 상승이 시설채소 농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유가평균이 배럴당 102.8달러일 경우 시설고추·오이·토마토·호박 등의 경영비(1천㎡당)는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9.8, 22.0%, 16.6%, 13.8% 늘어난다. 반면 생산비 증가로 이들 작물의 소득(1천㎡)은 각각 19.7%, 18.3%, 12.5%, 13.9%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영농철을 앞두고 기름값과 비료값 뿐 아니라 농자재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다. 지난 24일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딸기 시설하우스에서 농민 백옥호(56)씨가 딸기 모종에 비닐을 덮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방학 청소년 범죄 흉포화

단순 절도 넘어 강도·성폭행·납치 잇따라

겨울방학 중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단순한 절도를 넘어 강도·성폭행·납치·감금까지 일삼는 등 점차 흉포화되고 있다.

목포경찰은 25일 슈퍼마켓을 혼자 지키고 있던 초등학생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최모(15)군 등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 등은 지난 17일 낮 12시45분께 목포시 동명동 모 슈퍼마켓에서 혼자 있던 초등학생 정모(13)군을 흉기로 위협해 방안에 있던 현금 6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중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한 최군 등은 출근 돈으로 김모(17)군 등 6명을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학교 동창생인 김군 등은 지난해 11월15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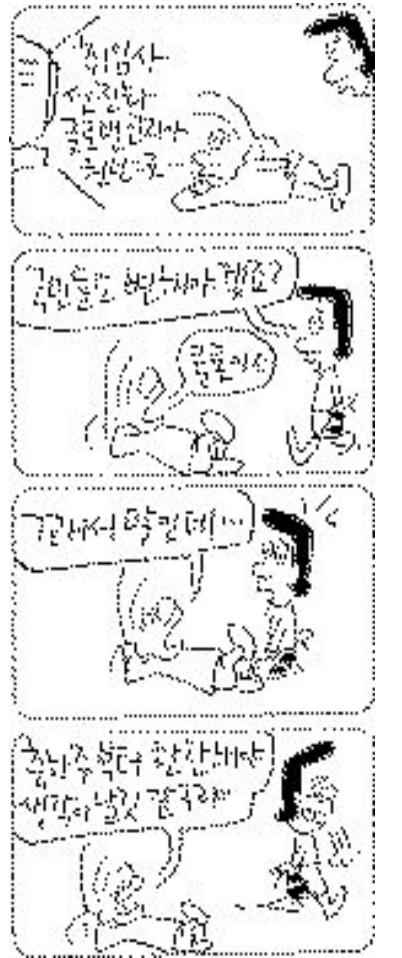
시 광산구 하남 일대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2대, 자전거 11대를 훔치는 등 지금까지 23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도 이날 같은 학교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친구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훔쳐 14차례에 걸쳐 58만원 상당을 사용한 김모(15·중2)양을 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앞서 광주 남부경찰은 지난 21일 분리를 흡입한 채 중학생 김모(13)군 등을 모텔에 감금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시킨 뒤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최모(16·중2) 등 3명, 남자 3명과 여중생 6명 등 9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10대들이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7명 이상이 몰려다니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추세”라며 “10대 범죄를 줄이기 위한 예방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니원침 (7442) 김장동



보험 사기 삼촌·조카 나란히 징역형

당뇨병을 숨긴 채 17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수익원의 보험을 타낸 전직 보험설계사와 32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질병으로 보험금을 받은 조카에 대해 법원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박현수 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염모(49)씨와 염씨의 조카(22·대학생)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의 실형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염씨는 지난 1999년 3월 당뇨병 관정을 받고도 이를 속인 채 같은 해 9월

부터 2005년 4월까지 10개 보험사 17개 상품에 가입한 뒤 2006년 7월까지 입원비와 치료비,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134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7천여 만원을 받아왔던 혐의로 기소됐다.

조카 염씨는 2002년 7월부터 2005년 10월 사이 14개 보험사 32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당뇨나 무릎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허위 질병을 내세워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44차례에 걸쳐 4천97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CC (Korea Credit Card) and other services, including a phone number 02-3445-0943.

도주 승객에 속아 영동한 사람과 시비

○택시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남의 차를 남편 차량이라고 속이고 달아난 여자 승객 때문에 택시기사와 차 주인이 주머다짐을 하다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은 25일 택시기사 이모(43)씨와 차 주인 염모(45)씨를 폭력행위 등 위반 혐의로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밤 9시 35분께 북구 풍향동 B갈비집 앞에서 한 여성승객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염씨의 차를 가리키며 “남편 차량이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한 뒤 나타나지 않자 염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인이 택시요금 내지 않고 갔다”며 밖으로 불러내 시비 끝에 서로 주머를 휘둘렀다는 것.

○이씨는 여성 승객이 남편 차라고 지목한 차량 앞에 부착된 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었는데, 경찰에서 “여자에게 속아 괜한 사람을 의심했다”며 선처를 호소. /이종형 기자 golee@

경찰서 과장 사무실 개방할까 말까

“의사 소통” “기밀 유지” 찬반 논란

광주·전남 지역 일선 경찰서 과장급 사무실 개방 문제를 둘러싸고 직원 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 혁신기획단은 지난 20일 부터 전국 경찰관서 과장급 사무실 개방문제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일선 경찰서 과장 사무실을 일반 직원과 같은 사무실에 배치할 경우 직원 상·하간 원활한 의사 소통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25일 오후 5시 현재 사이버 경찰청 정책대담 코너에는 1만4천개의 글들이 게재돼 있으며, 찬성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개방형 사무공간 조성’에 찬성하는 상당수 직원은 ‘경찰 조직도 탈 권위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 환영한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좋은 방안이다’ ‘일선 지구대 사무실도 개방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방에 반대하는 직원들

은 ‘항상 감시받는 느낌이 들 것 같다’ ‘수사기관 특성상 기밀 유지를 위해 과장 사무실을 개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등의 견해를 밝혔다. 광주 일선 경찰 한 직원은 “부서 특성을 감안한다면 개방형 사무공간을 조성하는데, 적극 찬성한다”며 “오히려 뒷사람들이 더 불편할

수도 있겠으나 업무 효율성 면에서는 폐쇄형보다는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00년 ‘개방형 사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가 업무의 비효율성 등 각종 부작용으로 시행 6개월 만에 중단한 적이 있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사회단체 보조금 횡령

장애인협 前지회장 수사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장애인 협회에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빼돌린 홍모(51)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8월 말까지 2년간 장애인 협회 화순군 지회장을 맡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군청으로부터 보조금 2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부 사회단체의 대표나 임원들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Jeonnam Eye Clinic' (전남안과) with contact information: (062) 233-5119.

Large advertisement for 'Seegi Bocheonggi' (세기보청기) hearing aids, featuring a cityscape background and a large graphic of a hearing aid. Text includes '세계 속에도 우뚝서다!' and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